‘재택치료상담 콜센터’ 운영

익산시, 오미크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불편 최소화

익산시가 개편된 정부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관리군과 어린이 확진자까지 재택치료와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반관리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9일 오택림 부시장을 주재로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재택치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 등이 포함된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이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 중심으로 관리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치료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해 비대면 진료 상담을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859-7587~91, 859-7601~03)는 변경된 방역·의료 대응체계와 지정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활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은 집중관리군과 어린이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편된 정부 지침에는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아용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공모선정

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 공급… 양질의 일자리 제공

군산시가 2022년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군산시가 2022년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지역의 퇴직자, 구직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취·창업 지원, 취업역량개발 등의 고용 서비스와 중소기업 성장과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 1만1,205명의 군산시민이 취업상담, 전직지원, 직업훈련 등 총 6만4,473건의 취업서비스를 이용했으며, 5,039명이 취·창업에 성공해 침체된 지역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전년도 새만금산업단지공단에 신규 입주한 ㈜이씨스, 에디슨모터스 등 주요기업에 4백여명의 취업연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고용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산=남현봉 기자

복합 커뮤니티 ‘익산시가족센터 · 여성회관’ 조성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서비스 공간인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이 새롭게 조성된다.

약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은 기존의 노후된 시설을 탈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일 모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 건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합시설물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건립계획 및 추진 경과 설명 및 의견 청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가족센터는 돌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나날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40년이 경과된 건물에 위치해 기능별 분산배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회관 역시 39년 된 노후 건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두 곳 모두 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경영환경 개선 위해 노력”

군산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실시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속 임원, 군산시 소재 회원사 대표들과 군산시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숙영 전북지회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성 기업인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게 현실이라며 군산시가 여성기업의 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더욱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지역 여성 기업인의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 창업과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인과 경영협력체로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의 여성, 기업의 대표이거나 임원인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북지회는 현재 209개의 회원사(군산시 소재 회원사 18개)와 동행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도와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약 130만원이 지급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0일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내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교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자연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추진

익산시는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랫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금마면 신용리에 위치한 황각 소하천을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황각 소하천은 익산천의 지류로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소하천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축제 및 제방 약 1.4km 보수, 교량 2개소 등을 재정비한다.

이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후 익산시 공공디자인 심의와 전라북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수립된 익산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소하천 62개소에 대한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재 건설과장은 “하천의 치수, 이수로 재해 예방은 물론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